

동부한농 '한농을 찾아라' 이벤트 실시

'한농' 로고 보내면 추첨을 통해 고급티셔츠 증정

(주)동부한농(대표 우종일)이 동부한농의 농자재 대표브랜드 '한농' 런칭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농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농을 찾아라' 이벤트는 동부한농 제품 포장지에 새겨진 '한농' 로고를 잘라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고급티셔츠를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또한 동부한농 농자재 사용 후기를 적어 보내면 우수 사용 후기를 선정하여 1등 30만원, 2등 2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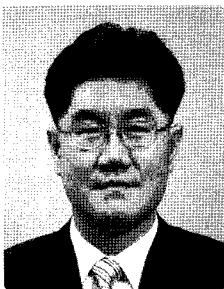
원, 3등 10만원 상당의 농자재를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 및 경품지급은 10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동부한농 관계자는 "'한농'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이벤트에 많은 고객의 참여를 바란다"며 "응모고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19층 동부한농 마케팅시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작물보호협, CLI의 PIC위원 '김경성 상무' 위촉



(주)동부한농(대표 우종일)의 김경성 상무이사가 세계농약산업의 대표 기구격인 CLI(CropLife International)의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7월 개최한 국제위원회에서 CLI의 PIC위원으로 동부한농 김경성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추천, 통보하고 산업계는 물론 연구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

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김상무는 다른 국가의 PIC팀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갖고 CLI 또는 국내에서 준비한 각종 PIC 자료를 활용, 각 회원사가 교육은 물론 PIC 관련 이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각국의 로테르담 협약과 관련한 협의회에 참석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중재역할을 맡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CLI의 PIC 위원은 각국 협회가 승인하여야 하며, 이번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등 3개국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바이엘, '고추·사과 크롭 플랫폼' 행사 실시

농업인들 상호간 정보교류 대화의 장 마련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사장 허랄드 프린츠)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정읍에서 '고추 크롭 플랫폼'과 8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경북 청송에서 '사과 크롭 플랫폼' 고객초청행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미 지난 7월 버 크롭 플랫폼 고객초청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바이엘은 고추와 사과에 대해서도 시료살포와 포장관리 등을 회사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제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작물보호제 사용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한 제품을 적기에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여 우리 농촌 현실에 걸맞은 병해충 잡초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행사기간 내내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약 800여명의 전문농업인들은 이 구동성으로 재배 작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열리게 되어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크롭 플랫폼의 확대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필드마케팅팀장인 정준기 이사는 "이번 행사는 병해충과 논둑 잡초 등을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끼리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크롭 플랫폼을 확대 설치하고 연중 운영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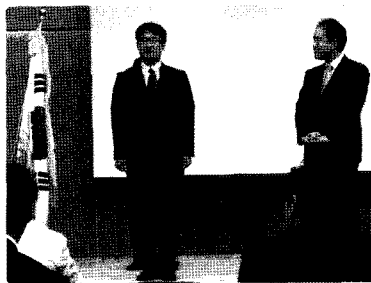
동방아그로, 업계 최초 '신진과학자상' 수상

한국환경농학회, 기술연구소 최영준 박사 수여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의 기술연구소 최영준 박사가 농약 업계 최초로 한국환경농학회에서 수여하는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신진과학자상'은 한국환경농학회가 수상년도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의 자로서 최근 5년간 환경농학분야의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써 학술상 다음으로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최영준 박사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벼 재배모델에 의한 농약의 작물 흡수이행성 Tier



System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환경농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회원들 앞에서 주제 발표도 가졌다.

동방아그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하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작물보호 산업의 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농, 영어스쿨 여름캠프 '찾아오는 영어클리닉' 개최 '농업인 자녀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 업계 호평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운영하고 있는 경농영어스쿨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경농영어스쿨 여름캠프 - 찾아오는 영어클리닉'을 개최하여 농촌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이천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여름캠프는 경농영어스쿨 수강학생들과 여름캠프 참가 희망자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농영어스쿨 원어민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여름캠프 교사진은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진행하며 참가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과 재미를 심어주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참가학생들은 그동안 접촉이 쉽지 않았던 원어민교사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외국인과의 대화에 자신감이 생기고 정확한 발음, 문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은 영어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올바른 영어교육' '가정에서의 영어교육 방법' 등 전문강의를 들으며, 자녀들의 학습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여름캠프에 참가한 이인규(경북 경주 아화중 1)군은 "그 동안 배워온 영어를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대화를 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길을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한편 경농영어스쿨은, 대도시에 비해 영어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업계 및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농촌 어린이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문화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농업업계의 대표적인 사회환원활동, 나눔경영활동으로 그 위상을 자리잡고 있다.

인사

- (주)동방아그로 [전보]△박상천 부장 법무팀 △김순섭 부장 마케팅팀 △이성현 부장서리 기획팀
△최훈 차장 경리팀 △김경환 차장서리 영업팀 △김응렬 차장서리 경기지점장
△김종길 과장 충북지점장